

살아 있는 두레문화의 재구성

주강현 지음 《한국의 두레 1·2》

천혜숙

안동대 교수 · 민속학

두 권으로 출간된 《한국의 두레》는 역사민속학자 주강현의 오랜 '화두' (1권 3면)였던 두레연구의 결산이라 할 만한 노작이다. 저자는, 민중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문헌에 오르지 못한 데다 그나마도 역사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거의 소멸하다시피한 두레문화의 재구야말로 민중생활사의 중요한 국면을 드러내 줄 수 있으리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썩어진 역사와 썩어지지 않은 역사의 간극을 읽어나가는 일이 민중생활사 연구의 핵심'이며 '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이 지향해야 할 바' (1권 4면)라는 자신의 신념을 이 연구를 통해 실천하고자 했다. 《한국의 두레》 가운데 1권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으로서 두레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에 해당되며, 2권은 주로 두레민속의 현지조사자료를 집성하고, 그밖에 두레의 연구사 및 연구방법에 참고 될 만한 글 몇 편을 자신의 글과 함께 덧붙인 것이다.

책 1권에서 저자는 대체로 향촌사회사나 한국사회의 경제사적 토대를 밝히기 위해 두레에 착목했던 역사학적 연구의 기반 위

에서, 두레를 민중의 생활문화 또는 물질생산문화로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동시에 두레의 어원, 두레형 농요, 또는 두레풍물굿에 관한 국문학 및 민속학적 연구도 포괄하면서 두레의 종합적 연구를 시도한다. 1권의 내용이 두레의 역사에서부터 두레와 공동노동, 두레의 조직, 두레의 제의와 놀이, 두레의 문학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그 관심의 폭을 짐작할 만하다.

제1권의 2장에서 논의된 두레의 변천사 부분에서는 조선조 후기 이양법의 확산으로 정착된 두레가 향촌사회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그 성격이 변화하고, 일제식민지 통치의 시작과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그 존립 근거를 상실당하게 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특히 생산조직인 두레가 19세기 사회변혁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배경과 그 실상에 대한 고증이 눈길을 끈다.

두레를 공동노동관행으로서 검토한 3장에서는 두레관행이 농농사의 감매기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주목하고, 그 관행의 지역성 및 전국적 전형성을 추출하여 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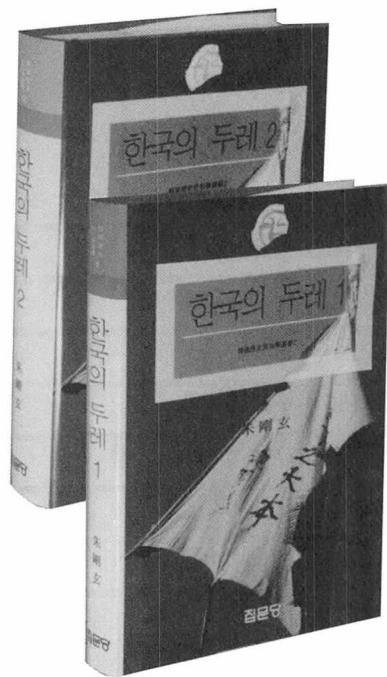
저자는 역사속에 소멸하다시피한 두레문화를 민중의 생활문화, 또는 물질생산문화로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의 계선(界線)과 도작문화의 계선이 상응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그리고 공동노동인 두레가 자연스럽게 풍물굿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동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순환의 원리를 두레노동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부각했다.

4장은 두레의 조직을 촌계(村契)의 발달과 관련하여 검토한 것이고, 5장은 공동체의 노동조직이자 자치조직인 두레가 자체적으로 행하는 제의와 놀이의 양상 및 그 공동체적 기능을 분석한 것이다. 공동체적인 강제성을 띠는 두레조직이 호미씻이 같은 제의와 기세배 등의 놀이를 통해 결집력을 강화하였고, 자연스럽게 외침이나 민란 같은 유사시에 자연스럽게 동원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밖에 6장에서는 두레와 문학의 상호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두레의 발생 및 정착과정이 노동요의 기원과 변천을 밝히는 기준이 됨을, 농서의 자료 및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이러한 폭넓은 관심은 이들 다양한 면면을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보고 그 상호관련성을 총체적으로 인식' (1권 14면)할 때 두레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저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레를 노동인 동시에 놀이로서, 또한 제의와 노래로도 실현되는 민중생활문화의 총체로서 드러내 고자 했다.

《한국의 두레》 2권은 두레연구의 지침을 위해 연구사와 연구방법론을 정리한 1장과 두레에 관한 현지조사자료를 모은 2장, 주요 논문을 모은 3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저자의 조사경험에서 도출된 두레 현지조사방법론은 참고할 만하다. 특히 연구사부분에서 북한 민속학자들의 연구를 포함함으로써 남북 민속학의 연계가능성을 모색한 동시에,



일제시대를 거쳐 북한에서 이루어진 연구 가운데 두레연구사에서 빠질 수 없는 글들을 3장으로 별도로 묶어서 후학들의 편의를 배려하고 있다.

연구사와 방법론을 포함한 이러한 총체적 연구의 시도는 한국사학과 문학 및 민속학, 북한민속학의 학문적 성과와 방법을 아우른 것이어서 인접학문간의 제휴적 연구로서도 그 의의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자는 역사민속학의 정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멸되어가는 두레에 관한 민속학적 현지조사자료와 문헌의 자료를 연결짓는 방법론' (2권 31면)을 모색한다. 우선 책 2권이 담고 있는 방대한 현지조사자료들이 그 성실한 모색의 소산이라 할 만하거나, 1권의 실제연구가 그가 제안한 방법론과 상응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복합적 문화인 두레를 하나의 민속체계로 조명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소략한 문헌자료의 한계를 현지자료로써 극복하는 동시에, 양자료의 행간을 읽어 두레의 역사와 실상을 해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두레문화, 나아가 민중생활사를 재구하기 위해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서 실험민속학을 제안하기도 한다.

아직은 생경하게 여겨지는 그 '실험'을 위해 조사된 두레 자료가 2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현지조사자료들은 소멸의 문턱에 있는 두레 연구에 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지에서 채록된 풍부한 속어나 민속언어가 살아있는 두레민속의 재구를 위한 텍스트로 활용되는 점도 이 책의 미덕으로 지적해 둘 만하다. ◆

집문당/A5신/각 462, 798면/각 20,000, 30,000원

저자 알뜰

《한국의 두레》 펴낸 주강현씨



《한국의 두레》(집문당)를 펴낸 주강현(43, 경희대 강사)씨의 감회는 남다르다. 20대 후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로 두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 불혹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의 청춘 모두를 바쳐온 연구가 일정한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두레가 사라진 지는 이미 수

십년전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천생 발품을 팔아 생존자들의 경험을 채록하는 수밖에. 이들이 언제 유명을 달리할 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 그는 전국 300여개 마을을 뛰어다녔다.

“두레는 일과 놀이가 한데 어우러진 마을 공동체입니다. 두레의 상부상조의 정신, 그리고 여기서 행해진 유기농법은 혼란과 불신에 가득차고 생태계의 파괴가 극에 달한 90년대 상황에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 '두레 공동체' '두레 농장' 등 두레의 전통을 복원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또 기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주의의 전통과 우리 문화와 민속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책을 쓰고 싶습니다.”

《마을로 간 미륵》《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를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주강현씨는 강단의 학자로서보다 훌륭한 저술가로 이름을 얻고 싶은 욕심이다. <박남정>